



부안농협,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무상지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23일 부안농협 주산지점에서 블루베리 재배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필요한 영농자재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부안농협은 관내의 블루베리 재배면적 1만3,860㎡의 재배농가수 9명에게 비료 수퍼솔 1,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2015년부터 무상지원으로 현재까지 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과거에는 수도작 중심의 지원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영농농가를 지원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소방서, 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대응 훈련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해빙기를 맞아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새만금 내측 양지항 인근에서 '해빙기 수난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안전 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구조대원 등 8명 참여로 구조공작차와 구급차, 산악구조차 등 장비와 고무보트, 선외기, 수심측정 장비 등 수난사고 대응 장비를 활용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수난사고 대응 절차(SOP)에 따른 구조활동 숙달 △고무보트 진수 및 선외기 조작 훈련 △새만금 내수면 수심 측정 △진입로 및 지형 파악을 위한 지리조사 △수상 순찰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금동, 무연고 어르신에 보금자리 마련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무연고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건강 회복부터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겨울 금동은 '1일 1가' 가정방문을 통해 홀로 거주하던 어르신 A씨를 발견,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로 인해 거동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 이에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긴급 이송 입원 조치했으나, 돌아갈 '집'이 없다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금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의 홀로서기를 위해 다시 한번 발 벗고 나서서 LH 노안주공아파트의 250만원의 보증금을 시 건축과 대출 지원으로 신청을 도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결핵ZERO, 다같이 동참해요!’

남원시보건소, 결핵예방의 날 맞아... 결핵 예방 홍보 활동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결핵ZERO, 함께해요!’ 라는 슬로건 아래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공기로 감염,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검진받아야 하며, 특히 감염 초기에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조기 검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내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해 결핵 예방수칙과 증상, 어르신 무료검진 안내를 송출하고, 시 누리집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보건소 결핵관리실 방문객에게는 홍보 리플릿 배부와 함께 기침 예절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현장 상담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단 감사 32명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과, 주요 증상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결핵 예방



홍보 및 검진 독려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결핵 예방은 평소 △기침할 때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구급차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결핵 환자와 접촉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진받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 지참 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결핵관리실(063-620-554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지난 22일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 등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하게 치러졌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상교통과 입안면, 내장산 일대를 지나는 코스로 편성돼 풀코스(42.195km), 10km, 5km 등 총 4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풀코스는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정식 공인 코스 인증을 받아 운영됐으며, 일정 기록(서브-3) 달성자에게 패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병행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5km 코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주최 측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각 코스별로 안전요원과 구급차를 촘촘하게 배치했으며, 정읍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교통 통제를 실시했다.

교통 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어져 행사는 큰 질서



유지 속에 진행됐다.

이화수 시장은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의 참여,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기꺼이 양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마라톤 대회가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펌블런스 운영 역량 강화

남원소방서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펌블런스(Pumbulance)’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 가동을 위한 일제 준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의 이번 준비에는 펌블런스 차량 9대와 구급장비 29종이 점검되었으며, 소방대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급대원 비탈승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처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 지역 내 펌블런스 출동 건수는 총 1,253건,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현장이 600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관련 환자 출동이 332건(27%)으로 그 뒤를 이으며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불예방 캠페인

완주군(정주)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완주군 모악산도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완주군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산불예방 기념품 배부와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진안군 용담면,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활동

진안군 용담면(면장 노기환) 기관사회단체협의회와 이장단은 23일 우리 동네 새 단장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기관사회단체협의회회원과 이장 등 40여명은 용담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시작해 송풍 도로변과 용담가족테마공원까지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지사<br>010-9845-4113 | 중앙지사<br>010-9088-6874 | 남원지사<br>632-3996      | 임실지사<br>010-9642-2725 |
| 심천지사<br>010-2333-4791 | 인후지사<br>246-6655      | 김제지사<br>545-1227      | 진안지사<br>433-3064      |
| 서신지사<br>272-9417      | 송전지사<br>255-2404      | 남원지사<br>632-0995      | 정읍지사<br>536-3787      |
| 호지지사<br>010-6645-9935 | 팔복지사<br>253-6844      | 순창지사<br>653-0444      | 정읍지사<br>010-3682-6157 |
|                       | 군산지사<br>010-8329-6677 | 부안지사<br>010-2425-4182 | 무주지사<br>010-4172-3800 |
|                       | 익산지사<br>659-9923      | 고창지사<br>563-6999      |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